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 연구*

황병호 (국민대학교 석사)**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 특히 창업활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적 활동을 국가수준에서 조사한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각 국가별 불평등 데이터인 WII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World Bank에서 조사한 국가별 경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 창업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평등과 창업활동의 관계에서 국내총생산(GDP)이 양의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소득 수준별 창업 활동의 양상을 확인한 결과 저소득 계층에서 생계형 창업의 빈도가, 기회형 창업의 빈도는 고소득 계층에서 높다는 점도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평등이 기업가적 활동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좀 더 정밀한 연구 설계와 이에 따른 실증분석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활동, 창업활동, 기회형 창업, 생계형 창업, 불평등, GDP

1. 서론

기업가적 활동은 모든 국가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왔다(Audretsch & Keilbach, 2004; Carree et al., 2007; Wong et al., 2005).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기업이 설립되면, 고용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이상관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Hisrich & O'Connide, 1985).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창업지원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가수준에서 기업가적 활동을 일으키는 영향변수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Armington & Acs, 2002; Audretsch & Lehmann, 2005; Kirchoff et al., 2007; Lay, 2003; Wang, 2006). 창업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는 시각에서는(Lumpkin & Dess, 1996; McClelland, 1965) 교육이나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지만, 제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개인적 특성보다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국가 혹은 지역 수준의 변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Aparicio et al., 2016; Su et al., 2017; Van de Ven, 1993). 최근 기업가적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크게 주목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Acs et al., 2017).

제도이론의 렌즈로 볼 때 민감하지만 흥미로운 질문 하나는,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악”으로 간주되는 불평등이 역설적으로 창업활동에 강력한 자극이 된다는 유명인사의 견해(Graham, 2017)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일부 학자들 역시 이와 같은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Lippmann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불평등이 과연 기업가적 활동을 추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3사이 GEM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가수준의 329개 관측치를 분석하였다. GEM연구의 결과인 총초기기업가적 활동비율 (TEA)과 생계형 창업비율 (TEA_ncc), 기회형 창업비율 (TEA_opp)등이 불평등지수인 Gini지수 및 10분위 분배율 자료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GDP로 측정된 국가별 경제성장 수준이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소득/고소득층이 창업을 선택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소득 수준별 생계형 창업, 기회형 창업의 빈도를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그 초기적 결과를 확인하는 탐색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창업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저자 황병호의 석사학위 논문(국민대학교)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 황병호, 국민대학교 석사, hhh0627@kookmin.ac.kr

***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drkim@kookmin.ac.kr

· 투고일: 2018-05-06 · 수정일: 2018-06-27 · 게재확정일: 2018-06-29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기업가적 활동과 측정

기업가적 활동 (Entrepreneurial Activity)은 최근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 용어의 정의는 학자와 맥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회를 포착하여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한다(Baron & Shane, 2005; Dahlqvist et al., 2000; Venkataraman, 1997). 많은 선행연구는 기업가적 활동의 선행 요인으로서 창업자의 개인수준 변수들에 집중하여 왔고 인적 특성, 교육수준, 동기 와 같은 다양한 변수 등과 기업가적 활동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진행되었다(Arenius & Minniti, 2005; Acs et al., 2007; Bergmann & Sternberg, 2007; Levie, 2007; Minniti & Nardone, 2007).

기업가적 활동을 측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기업가적 활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속해 있는 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비영리기관 등에서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활동은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쉽다. 그래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창업활동은 기업가적 활동의 핵심적인 측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 (이하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기업가적 활동 및 기업가정신의 국제 비교를 추구하기 위해 수립된 연구 프로그램이다(Reynolds et al., 2002). GEM연구는 1999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각 국가별 최소 2,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성인조사 (APS: Adult Population Survey)와 함께 창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전문가조사 (NES: National Expert Survey)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GEM연구의 핵심은 국가별 기업가적 활동을 비교 분석하는 것인데, 기업가적 활동의 핵심변수로서 해당 국가의 총 초기기업가 활동비율 (TEA: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지표는 두 가지 비율의 합인데, 성인(18-64세) 가운데 창업 중이거나 창업한지 3개월 이내인 창업자를 뜻하는 것 창업자 (Nascent Entrepreneur)의 비율과, 이 시기는 지났으나 창업 후 아직 42개월 미만인 기업을 운영하는 신규기업소유자 (New Business Owner)의 비율을 합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활동의 지표로 이 TEA를 사용하고자 한다.

2.2 창업활동의 구분

GEM연구는 창업활동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Block & Wager, 2010; Lippmann et al., 2005; Verheul et al., 2010). 첫 번째는 생계형 창업 (Necessity Entrepreneurship)이다. 사람들은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생계형 창업을 선택한다. 이것은 해당 사회의 고용이 생계형 창업보

다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뜻한다(Lippmann et al., 2005). 일반적으로 높은 생계형 창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겨진다. Kelley et al.(2012)의 연구에서 생계형 창업의 비율과 1인당 GDP는 L자형 관계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창업유형은 기회형 창업 (Opportunity Entrepreneurship)이다. 이것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 서비스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창업이다. Acs & Szerb(2007)등의 연구에서는 기회형 창업비율과 국가경제성장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를 국가경제발전의 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2.3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등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믿는다. 사회학 연구자들도 이에 동의한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친근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McPherson et al., 2001) 불평등은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만들어 응집성과 통합을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불평등은 집단 간의 신뢰를 감소시켜 자살, 범죄, 살인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된다(Alesina & La Ferrara, 2002; Costa & Kahn, 2003; Skocpol, 2003). Stiglitz(2012) 그리고 Wilkinson & Pickett(2009)등의 연구에서도 불평등이 높을수록 폭력 및 범죄의 증가, 영아 사망률 증가, 교육의 질적 저하, 사회 이동성과 같은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의 순기능을 파악한 학자들도 있다. 불평등이 야말로 치열한 경쟁의 동력이며, 경쟁은 결국 생산성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Lazear & Rosen, 1981).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국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불평등을 기업가적 활동과 관련시키는 연구들은 금융자본 (Financial Capital)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즉, 금융자본이 기업가적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Blanchflower & Oswald 1998; Evans & Jovanovic, 1989), 금융자본은 불평등을 통해 소수에게 자본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즉 재산을 ‘불평등하게’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야 창업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논리에 따라 불평등이 기업가적 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추측한 학자들이 많다(Evans & Jovanovic, 1989; Massey & Fischer, 2000). 반대로 금융자본의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Aldrich, 1999). 창업시점에서 대규모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자들도 금융자본이 성장단계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Fichman & Levinthal, 1991). 충분한 금융자금의 존재는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혹은 단

기적인 성장이 반드시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Aldrich & Auster, 1986; Aldrich & Fiol, 1994).

창업자 가운데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Holtz-Eakin et al., 1994).

금융자본의 역할 이외에도 불평등과 창업의 양의 상관성을 예측한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창업이 창업자가 자신이 처한 경제적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Begley et al., 2005; Pfeffer & Salancik, 2003). 하지만 불평등이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불평등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권력층의 부패, 예측 불가능성 등을 야기하여 창업 활동을 제약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Birdsall, 2006; Corak, 2013; Stiglitz, 2012).

따라서 불평등과 창업활동을 살펴볼 때, 창업활동에 상당한 금융자본이 필요한지, 또 창업활동이 어떤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동기는 주로 추진요인 (Push Factor)과 유인요인 (Pull Factor)으로 분류된다(Taormina & Sammi, 2007; Wang et al., 2006). 생계형 창업은 추진요인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굶주림과 두려움 같은 일차원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 퇴직, 낮은 임금과 같은 외적 영향력과 관련되어 있다 (Buttner & Moore, 1997; Curran & Blackburn, 2001; Roffey et al., 1996). 반대로 기회형 창업의 동기는 주로 유인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성취와 야망, 성공 및 자아실현 등과 같은 내적 영향력에 근거한다고 알려져 있다(Keeble et al., 1992; Orhan & Scott, 2001).

2.4 불평등, 경제발전 수준과 기업가적 활동

국가 수준에서 불평등과 경제 성장 수준의 연구 중 가장 선구적인 업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쿠즈네츠 가설(Kuznets Hypothesis)이다. 불평등이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 증가하다가 경제성장 후기 단계에서 감소하게 되어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발전은 역 U자형 관계를 따른다는 주장이다(Kuznets & Jenks, 1953; Kuznets, 1955). 경제 성장과정 초기에는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서 농촌의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화가 농촌까지 영향을 주어 불평등이 해소된다는 말이다.

경제발전 수준과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 역시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다. GEM은 경제발전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TEA와 GDP(국내총생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최빈국에서 기업가적 활동이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이 되면서 점차 감소하고, 국가 경제가 성장해 선진국이 되면 다시 기업가적 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은 오랜 기간 동안 확인되고 있다. 최빈국에서는 생계형 창업의 비율이 높아 높은 수준의 기업가적 활동이 보이고 선진국에서는 부와 기회가 많아져 기회형 창업활동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과 창업활동간의 관계에서 경제발전 수준이 개입할 것으로 가정한다.

III. 연구 방법

3.1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과연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기업가적 활동을 유발하는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서 불평등이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빈곤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흔히 고용불안정의 영향으로 생계형 창업활동이 활발할 것이라는 추정(Buttner & Moore, 1997; Curran & Blackburn, 2001; Roffey et al., 1996)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발전 수준이 높으면서 부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의 잉여자본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여 기업가적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Evans & Jovanovic, 1989; Massey & Fischer, 2000).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국가들의 기업가적 활동은 높을 것이다.

가설 1-1.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국가들의 총초기기업가활동 비율은 높을 것이다.

가설 1-2.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국가들의 생계형 창업비율은 높을 것이다.

가설 1-3.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국가들의 기회형 창업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국가수준의 경제적 특성이 기업가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Begley & Tan, 2001; Begley et al., 2005; GEM, 2014; Tan, 2002). Begley et al.(2005)은 국가의 경제, 사회, 정책 등이 기업가적 활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의 수립과정에서도 반영되곤 한다(Evans et al., 1985; Wade, 1990). 다양한 국가수준의 경제지표 가운데 기업가적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소득수준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이다(Acs & Audretsch, 1987; Audretsch, 2002; Carree et al., 2002; Storey, 1998). 또한 경제성장과 불평등 역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른바 쿠즈네츠 가설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Kuznets & Jenks, 1953; Kuznets, 195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이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사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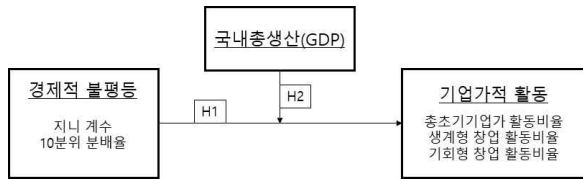
가설 2. 경제발전 수준 (GDP)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 사이 관계는 더욱 강화된다.

가설 2-1. GDP는 경제적 불평등과 총초기기업가활동비율 사이에서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GDP는 경제적 불평등과 생계형 창업비율 사이에서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3. GDP는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형 창업비율 사이에서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설정된 가설을 모형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자료 수집 및 조작적 정의

3.2.1 분석자료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 결합하여 사용 하였다. 종속변수인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은 GEM연구에서 수집한 총 66개의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국가별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 연차별 조사대상 표본은 매년 바뀐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자료이다.

이와 같은 특수성과, 대장기간 동안 새로 진입하거나 탈락한 국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GEM 자료를 pooled OLS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Gonzalez-Alvarez et al., 2016)이다.

경제적 불평등 지표는 WII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 국내총생산지표는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각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특정변수가 누락된 국가는 해당년도에서 제외 시켰다.

통제변수는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고 특정 독립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의 영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 제외시켰다. 하지만 기업가적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 두 가지 변수로 확인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였다.

3.2.2 변수의 설정

GEM연구의 핵심변수인 TEA는 생계형 창업비율 (TEA_ncc)과 기회형 창업비율 (TEA_opp)로 분해될 수 있다(Reynolds et al., 2002; Verheul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의 TEA와 TEA_ncc, TEA_opp의 비율을 가장 중요한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은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수이다. 이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니계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되며, 다른 연구와의 결합이 용이하지만 불평등 지표에서 요구하는 가법성 원칙(Principle of Decomposability)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가법성 원칙은 Foster et al.(1984)로 부터 만들어진 공리로서, 전체 빈곤지수의 합과 세부 그룹의 빈곤지수 합이 같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0분위 분배율은 불평등 양극화 연구에 주로 사용되며, 지니계수에 비해 체계적인 연구방법은 아니지만 직관적인 지표로서 매우 많이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지표로, 로렌즈곡선을 가지고 계산한다. 로렌즈곡선은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해 총 인구를 100으로 정하고 가로축에는 인구누적비율, 세로축에는 소득누적비율로 설정하여 인구누적비율과 소득누적비율을 연결한 완전균등선인 45도를 그 기준으로 그려진다.

이때, 소득이 가장 적은 곳부터 높아지는 순서를 그렸을 때의 영역을 로렌즈곡선이라고 정의한다(Bronfenbrenner, 1971; Russell & Chaudhuri, 1992). 이 로렌즈곡선과 45도의 선 사이의 면적을 하방의 전체의 면적과 대비시킨 비율 값이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0일 때 가장 평등한 분배를, 1일 때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즉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Kakwani, 1977).

10분위 분배율은 1973년 Adelman교수와 Morris교수가 발표한 불평등 지표로서, 불평등 측정 지표 중 빈부의 격차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 10분위 분배율은 한 국가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크기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점유율과 최상위 20%의 점유율에 대한 비율이다(문옥륜 등, 1999).

$$10분위 분배율 = \frac{\text{최하위 40\%의 소득배분}}{\text{최상위 20\%의 소득배분}}$$

10분위 분배율은 2에 가까울수록 높을수록 평등하다고 본다 (최대값: 2, 최소값: 0). 완전히 평등한 국가라면 최하위 40%가 받는 소득배분의 합은 전체 소득의 40%가 되고 최상위 20% 계층이 받는 소득배분의 합은 전체 소득의 20%가 되므로 10분위 분배율은 2가 될 것이다. 소득이 완전히 불평등한 국가라면 한 개인만이 소득 전체를 모두 가지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으므로 이때 10분위 분배율은 0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지표를 각각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정의 및 출처는 <표 1>에 제시된다.

<표 1> 변수 정의 및 자료 출처

변수		변수 정의	자료 출처
종속 변수	TEA	전체 성인인구 중 갖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의 활동비율	GEM*
	TEA_ncc	전체 성인인구 중 생계형 창업비율	
	TEA_opp	전체 성인인구 중 기회형 창업비율	

독립 변수	에 연 불	Gini 계수	대표적인 불평등 측정 지표	WIID*
		10분위 분배율	소득계층의 최하위 40%가 차지하는 소득점유비율을 최상위 20%가 차지하는 점유비율로 나눈 불평등 측정 지표	WIID*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조절 변수	국내총생산 (GDP)	국민1인당 국내총생산GDP(Per Capita)	World Bank*	

*GEM(<https://www.gemconsortium.org>), WIID(<https://www.wider.unu.edu>), World Bank(<https://www.worldbank.org>) 홈페이지 참고.

IV.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23.0K를 사용하여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 및 GDP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4.1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GEM연구와 WIID, World Bank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2002년-2013년 사이의 329개의 값이다. 국가의 수는 총 66개국이지만, 연도별로 누락된 변수가 있는 국가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연도별로 국가의 수는 다르다.

<표 2>는 GEM-WIID-World Bank 결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불평등과 TEA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TEA와 지니계수와는 양의 관계, TEA와 10분위 분배율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GDP와 불평등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지니계수와는 음의 관계, 10분위 분배율과는 양의 관계)로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GDP와 TEA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2> 측정 변수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단위: 건, %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1. Gini	329	0.36	0.09	1.00					
2. Deciles	329	0.45	0.16	-0.979***	1.00				
3. GDP	329	9.83	0.99	-0.662***	0.666***	1.00			
4. TEA	329	9.45	7.01	0.563***	-0.558***	-0.595***	1.00		
5. TEA_nec	329	6.74	4.65	0.511***	-0.503***	-0.486***	0.970***	1.00	
6. TEA_opp	329	2.33	2.64	0.583***	-0.579***	-0.722***	0.908***	0.795***	1.00

Gini: 지니계수, Deciles: 10분위 분배율, GDP: 국내총생산 Log 변환, TEA: 총초기기업가활동비율, TEA_nec: 생계형 창업비율, TEA_opp: 기회형 창업비율 *<0.1, **<0.05, ***<0.01

4.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 및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를 확인하고 GDP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조절회귀분석(Sharma et al., 1981)을 진행하였으며, 가설 1과 가설 2를 검

증하였다. Aiken & West(1991)의 도식화 방법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이 도식화 방법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를 이어 개별 회귀선으로 나타내어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설 1-1을 증명하기 위한 불평등과 TEA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 <표 4>의 모형1과 같고, 가설 2-1의 증명은 모형1과 모형2의 Adj-R²의 비교로 볼 수 있다.

<표 3> 지니계수와 총초기기업가활동비를 분석 (조절회귀분석 결과)

구분	B	β	t(p)	공선성 진단		F(p)	Adj-R ²	
				TOL	VIF			
모형1	(상수)	9.439	31.525*** (0.000)			170.965*** (0.000)	0.324	
	Gini	0.429	0.571	13.075*** (0.000)	1.000			1.000
모형2	(상수)	8.266	21.134*** (0.000)			69.536*** (0.000)	0.367	
	Gini	0.205	0.272	3.766*** (0.000)	0.342			2.924
	GDP	0.000	-0.320	-4.741*** (0.000)	0.392			2.549
	Gini X GDP (상호작용변수)	-1.052E-5	-0.272	-4.488*** (0.000)	0.485			2.060

주) VIF: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TOL: 공차한계(Tolerance Limit)
*<0.1, **<0.05,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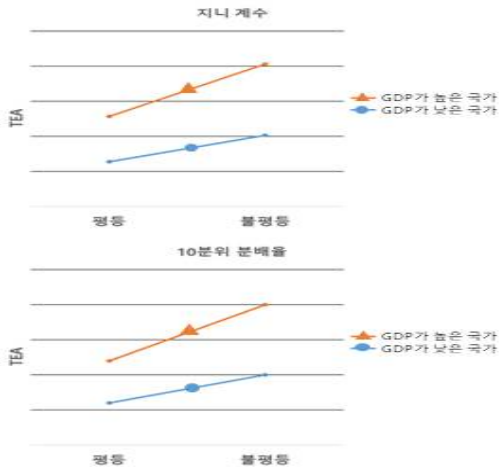
<표 4> 10분위 분배율과 총초기기업가활동비를 분석 (조절회귀분석 결과)

구분	B	β	t(p)	공선성 진단		F(p)	Adj-R ²	
				TOL	VIF			
모형1	(상수)	9.392	29.245*** (0.000)			147.912*** (0.000)	0.309	
	10분위 분배율	-24.547	-0.558	-12.162*** (0.000)	1.000			1.000
모형2	(상수)	7.975	20.556*** (0.000)			68.306*** (0.000)	0.381	
	10분위 분배율	-12.506	-0.284	-4.374*** (0.000)	0.447			2.239
	GDP	0.000	-0.334	-5.013*** (0.000)	0.425			2.351
	10분위 분배율 X GDP (상호작용변수)	0.001	0.321	5.987*** (0.000)	0.657	1.523		

주) VIF: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TOL: 공차한계(Tolerance Limit)
*<0.1, **<0.05, ***<0.01

<표 3>, <표 4> 모형1의 Adj-R² 값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나타내주는 설명력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13%이상의 값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모형의 F(p)는 유의수준 1%로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한 불평등 변수는 1%수준에서 TEA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Gini 지수는 TEA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0분위 분배율은 음(-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불평등 지수의 차이 때문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됐다.



<그림 2> 불평등과 총초기기업가활동비율에서 GDP의 조절효과

<표 3>, <표 4>의 모형1과 모형2의 비교는 불평등과 TEA에 대한 GDP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DP가 조절효과를 가지려면 모형1과 모형2의 Adj-R²이 유의하게 증가해야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표 3>, <표 4>의 모형2는 36.7%, 38.1%의 설명력을 보여주며 유의수준은 1%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F=69.536, 68.306). 모형3의 Adj-R²은 모형1에서 증가한 값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의 그래프에서 GDP가 높은 국가에서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간 영향 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 TEA가 증가하고 GDP가 그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1은 지지된다.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한 불평등과 TEA_{nec}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5>, <표 6>의 모형1과 같다. 가설 2-2에 대한 결과는 모형1, 모형2의 Adj-R²의 비교로 확인 가능하다.

<표 5> 지니계수와 생계형 창업비율 분석 (조절회귀분석 결과)

구분	B	β	t(p)	공선성 진단		F(p)	Adj-R ²
				TOL	VIF		
모형1	(상수)	2.358	20.752*** (0.000)			183.845 *** (0.000)	0.340
	Gini	0.169	13.559*** (0.000)	1.000	1.000		
모형2	(상수)	1.848	13.183*** (0.000)			97.139 *** (0.000)	0.448
	Gini	0.043	2.190** (0.029)	0.342	2.924		
	GDP	-6.491E-5	-8.455*** (0.000)	0.392	2.549		
	Gini X GDP (상호작용변수)	-4.593E-6	-5.466*** (0.000)	0.485	2.060		

주) VIF: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TOL: 공차한계(Tolerance Limit)
* < 0.1, ** < 0.05, ***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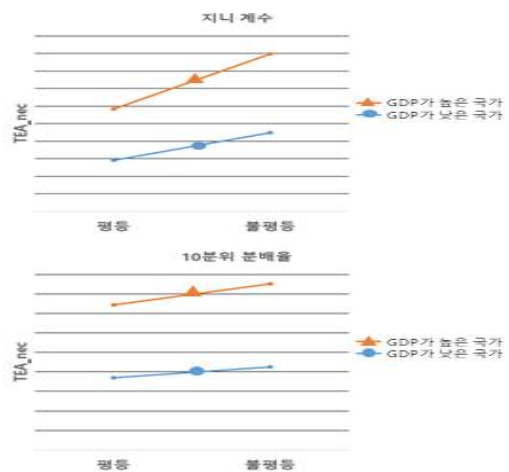
<표 6> 10분위 분배율과 생계형 창업비율 분석 (조절회귀분석 결과)

구분	B	β	t(p)	공선성 진단		F(p)	Adj-R ²	
				TOL	VIF			
모형1	(상수)	2.305	19.978*** (0.000)			165.257 *** (0.000)	0.334	
	10분위 분배율	-9.612	0.748	-12.855 *** (0.000)	1.000			1.000
모형2	(상수)	1.809	13.043*** (0.000)			88.347 *** (0.000)	0.444	
	10분위 분배율	-3.398	-0.205	-3.325*** (0.001)	0.447			2.239
	GDP	-6.046E-5	-0.502	-7.950*** (0.000)	0.425			2.351
	10분위 분배율 X GDP (상호작용변수)	0.000	0.307	6.051	0.657			1.523

주) VIF: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TOL: 공차한계(Tolerance Limit)
* < 0.1, ** < 0.05, *** < 0.01

<표 5>, <표 6>의 모형1에서 Adj-R²은 약34%, 33.4%의 설명력을 보여주며 유의수준은 1%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F=183.845, 165.257). 불평등 지수는 1%수준에서 TEA_{nec}에 유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표 6>의 모형1, 모형2의 비교는 불평등과 TEA_{nec}에 대한 GDP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결과를 보여주며 모형2는 1%유의수준에서 타당하게 나타났다. 모형2의 Adj-R² 값은 모형1과 비교해보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TEA_{nec}가 증가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1-2, 2-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림 3> 불평등과 생계형 창업비율에서 GDP의 조절효과

불평등과 TEA_op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 <표8>의 모형1과 같다. GDP를 조절효과로 본 결과는 모형1, 모형2의 Adj-R²의 비교로 볼 수 있다.

<표 7> 지니계수와 기회형 창업비율 분석 (조절회귀분석 결과)

구분	B	β	t(p)	공선성 진단		F(p)	Adj-R ²
				TOL	VIF		
모형1	(상수)	6.693	32.231*** (0.000)			123.756 *** (0.000)	0.257
	Gini	0.253	11.125*** (0.000)	1.000	1.000		
모형2	(상수)	6.044	21.877*** (0.000)			46.632 *** (0.000)	0.278
	Gini	0.152	3.974*** (0.000)	0.342	2.924		
	GDP	-3.911E-5	-2.586** (0.010)	0.392	2.549		
	Gini X GDP (상호작용변수)	-5.802E-6	-3.505*** (0.001)	0.485	2.060		

주) VIF: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TOL: 공차한계(Tolerance Limit)
* < 0.1, ** < 0.05, *** < 0.01

<표 8> 10분위 분배율과 기회형 창업비율 분석 (조절회귀분석 결과)

구분	B	β	t(p)	공선성 진단		F(p)	Adj-R ²
				TOL	VIF		
모형1	(상수)	6.712	30.224*** (0.000)			110.622 *** (0.000)	0.250
	10분위 분배율	-14.680	-10.518*** (0.000)	1.000	1.000		
모형2	(상수)	5.798	21.307*** (0.000)			49.852 *** (0.000)	0.309
	10분위 분배율	-8.558	-4.267*** (0.000)	0.447	2.239		
	GDP	-4.976E-5	-3.334*** (0.001)	0.425	2.351		
	10분위 분배율 X GDP (상호작용변수)	0.000	5.429*** (0.000)	0.657	1.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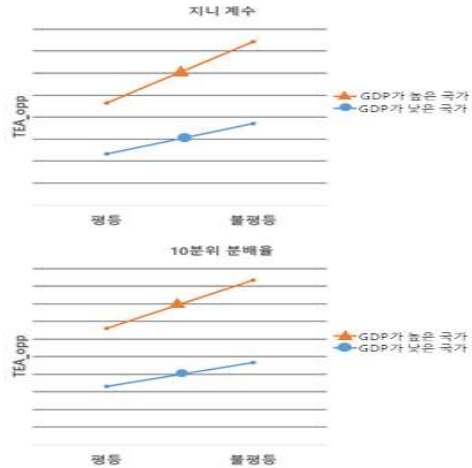
주) VIF: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TOL: 공차한계(Tolerance Limit)
* < 0.1, ** < 0.05, *** < 0.01

<표 7>, <표 8>의 모형1에서 Adj-R²은 약25.7%, 25%의 설명력을 보여주며 유의수준은 1%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F=123.756, 110.622). 으로 1%유의수준에서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평등 지수는 1%수준에서 TEA_opp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기회형 창업비율이 높아짐을 말하고 본 연구의 가설 1-3과 부합한다.

<표 7>, <표 8>의 모형1, 모형2의 비교는 불평등과 TEA_opp에 대한 GDP의 조절효과를 보여준다. 모형2의 설명력은 1%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모형2의 Adj-R²값은 모형1과 비교했을 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림 4>의 그래프에서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TEA_opp이 증가했고, GDP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의 차이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2-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림 4> 불평등과 기회형 창업비율에서 GDP의 조절효과

4.3 추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추가 분석으로 소득 계층별 창업 활동의 양상에 대해 연구했다. 사용된 자료는 GEM연구 중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1,000,851명의 일반성인조사(APS)데이터를 이용했다. 가계소득에 대한 자료는 소득을 삼분위로 분류한 'Gemhinc'을 사용하여 TEA_nec, TEA_opp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빈도분석은 χ^2 분포에 기초한 통계방법이며, 관찰빈도와 기대빈도가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

아래<표 9>에서는 추가 분석을 위한 변수의 정의와 출처를 제시했다.

<표 9> 추가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출처

변수이름	조작적 정의	자료 출처
GEMHHINC	피실문자의 가계 소득을 설문 참여자의 삼분위 소득으로 표시 ※저소득 (Lowest 33%), 중소득 (Middle 33%), 고소득 (Upper33%)	GEM*
TEA_nec	기업가적 활동 중 별다른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	
TEA_opp	기업가적 활동 중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고자 창업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	

* GEM(<https://www.gemconsortium.org>) 홈페이지 참고.

국가의 자원이 제한적인 가운데 사업을 시작하려는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원과 기업가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Blanchflower & Oswald, 1998; Evans & Jovanovic, 1989). 여기서 뜻하는 자원은 금융자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본을 확보하기 힘들어 기업가적 활동을 시작하기 어렵다(Bates, 1997). 하지만 사람들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생계형 창업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추구하게 된다(Block & Wagner, 2010; Lippmann et al., 2005; Reynolds et al., 2002; Verheul et al., 2010).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을 시작한다(Shane et al., 2003). 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고 부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기회를 발견하기 쉽고, 신용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대출 용이하여 자금에 대한 걱정이 적어 기회형 창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창업활동 및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생긴다고 설명한다(Acs & Audretsch, 1987; Audretsch, 2002; Carree et al., 2002; Storey, 1998). Xavier-Oliveira et al.(2015)는 고소득층의 개인은 생계형 창업보다 기회형 창업을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소득수준이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Block & Wagner, 2010; Lippmann et al., 2005; Reynolds et al., 2002; Verheul et al., 2010)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별 창업 활동의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소득 수준별 기업가적 활동 양상을 확인해본 결과는 <표 10>, <표 11>에 제시된다. 총 1,000,851명의 조사대상 가운데 생계형 창업을 경험한 사람의 수는 29,173(2.9%)명, 기회형 창업을 경험한 사람의 수는 74,633(7.5%)명으로 나타났다.

<표 10> 소득 수준별 생계형 창업여부

변수이름		N	생계형 창업여부	χ^2
			유	
가계 소득	저소득	289,455	8940 (3.1%)	129.046***
	중소득	343,971	10439 (3.0%)	
	고소득	367,425	9794 (2.7%)	
전체		1,000,851	29173 (2.9%)	

*<0.1, **<0.05, ***<0.01

<표 11> 소득 수준별 기회형 창업여부

변수이름		N	기회형 창업여부	χ^2
			유	
가계 소득	저소득	289,455	14180 (4.9%)	6343.343***
	중소득	343,971	23714 (6.9%)	
	고소득	367,425	36739 (10.0%)	
전체		1,000,851	74633 (7.5%)	

*<0.1, **<0.05, ***<0.01

생계형 창업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저소득층에서 8,940(3.1%)명, 중소득층에서 10,439(3.0%)명, 고소득층에서 9,794(2.7%)명이 생계형 창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였다. 이 결과는 소득수

준이 낮을수록 생계형 창업활동이 많이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기회형 창업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고소득 계층에서 36,739(10.0%)명, 중소득 계층에서 23,714(6.9%)명, 저소득 계층에서 14,180(4.9%)명이 기회형 창업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창업 의도 및 활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설명과 잘 부합한다(Acs & Audretsch, 1987; Audretsch, 2002; Carree et al., 2002; Storey, 1998).

4.4 분석결과 종합

본 연구는 GDP를 조절효과로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첫째, 선행연구를 기초로 불평등이 기업가적 활동을 유발하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이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했다. 가설 검증결과 불평등은 기업가적 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 전체적인 기업가적 활동이 불평등이 낮은 국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를 확인 했을 때 국가의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GDP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 경제수준이 그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추가 연구에서, 소득 계층별 창업 활동의 양상을 확인해본 결과 저소득층에서 생계형 창업의 빈도가, 고소득층에서 기회형 창업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Xavier-Oliveira et al.(201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표 12>는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이다.

<표 12> 가설 검증 결과

가설	지지/ 기각
가설 1-1.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국가들의 총초기기업가활동 비율은 높을 것이다.	지지
가설 1-2.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국가들의 생계형 창업비율은 높을 것이다.	지지
가설 1-3.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국가들의 기회형 창업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지지
가설 2-1. GDP는 경제적 불평등과 총초기기업가활동비율 사이에서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지지
가설 2-2. GDP는 경제적 불평등과 생계형 창업비율 사이에서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지지
가설 2-3. GDP는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형 창업비율 사이에서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지지

V. 결론

5.1 결론 및 토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으로 기업가적 활동을 꼽고 있다(Acs, 1999). 이처럼 기업가적 활동의 장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가적 활동을 유발하는 국가수준의 영향변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한상연, 2016). 그 이유는 기업가적 활동을 국가 간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1999년 시작된 기업가적 활동 및 태도에 관한 GEM연구는 기업가정신을 국가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연구가 개인수준에 집중되어 왔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진행 되었다. 따라서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 그리고 GDP와 같은 국가 수준의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주요 연구들(Lippmann et al., 2005; Reynolds et al., 2002; Xavier-Oliveira et al., 2015)을 기반으로 불평등 그리고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 사이에 GDP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불평등과 TEA, TEA_nec, TEA_opp의 영향을 분석한 가설 1의 검증결과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평등이 생계형과 기회형을 막론하고 기업가적 활동을 유발하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또한, 조절변수인 GDP의 영향을 분석한 가설 2의 결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가의 경제성장 수준이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부유한 국가의 경우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는 풍부한 자본이 기업가적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에 해당하는 이들 역시 강력한 창업유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가분석의 연구에서는 금융자본에 따라 창업을 선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빈도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예측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계층에서는 생계형 창업활동이 빈도가 높았고, 고소득 계층에서 기회형 창업활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유자산나 소득이 창업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있다는 선행연구들(Audretsch, 2002)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평등이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며 이를 GDP가 조절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결론의 외적 타당성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우선, 현재의 GEM자료로서는 소득이외의 보유자산수준을 포착할 수 없다. 또한 pooled OLS모형을 상용하였기 때문에 국가별, 혹은 문화권의 영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 앞으로 이를 위한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새로운 연구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불평등과 창업활동의 관계가 매우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GEM 자료가 이와 같은 연구에 상당한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의 소득수준이 창업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앞으로 창업교육,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의 소득 및 자산변수를 적극적으로 필요할 검토가 있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가적 활동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 불평등을 일정정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의 사회적 악영향을 더 중요하게 여겨 이를 줄여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REFERENCE

문옥륜·이규식·이기효·장동민·이해중·김창엽·신영진(1999). *의료서비스의 배분적 정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철·강유리(2010). 정책연구: 한국, 중국, 몽골,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에 관한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 32(2), 225-246.

한상연(2016). 개인의 계획된 행위와 국가경제환경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벤처창업연구*, 11(4), 149-165.

Acs, Z. J., & Audretsch, D. B.(1987). Innovation, market structure, and firm siz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67-574.

Acs, Z. J., & Szerb, L.(2007). Entrepreneurship,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Small business economics*, 28(2-3), 109-122.

Acs, Z.J, Erik Stam, David B. Audretsch, Allan O'Connor.(2017). The lineages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approach. *Small Business Economics*, 49(1).

Adelman, I., & Morris, C. T.(1973).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Sage.

Aldrich, H.(1999). *Organizations evolving*. Sage.

Aldrich, H. E., & Auster, E. R.(1986). Even dwarfs started small: Liabilities of age and size and their strategic implic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1986), 165-186.

Aldrich, H. E., & Fiol, C. M.(1994). Fools rush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industry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4), 645-670.

Alesina, A., & La Ferrara, E.(2002). Who trusts oth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5(2), 207-234.

Aparicio, S., Urbano, D., & Audretsch, D.(2016). Institutional factors, opportunity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Panel data evidenc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02, 45-61.

Arenius, P., & Minniti, M.(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247.

Armington, C., & Acs, Z. J.(2002). The determinants of regional variation in new firm formation. *Regional*

- studies*, 36(1), 33-45.
- Audretsch, D. B. (Ed.). (2002). *Entrepreneurship: determinants and policy in a European-US comparison (Vol. 27)*.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Audretsch, D., & Keilbach, M.(2004). Entrepreneurship capital and economic performance. *Regional studies*, 38(8), 949-959.
- Audretsch, D. B., & Lehmann, E. E.(2005). Does the 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 hold for regions?. *Research Policy*, 34(8), 1191-1202.
- Baron, R. & Shane, S.(2005). Entrepreneurship: A Process Perspective, *Southwestern, Thomson, Cincinnati*, OH 36-62.
- Bates, T. M.(1997). *Race, self-employment, and upward mobility: An illusive American dream*.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Begley, T. M., & Tan, W. L.(2001).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hip: A comparison between East Asian and Anglo-Saxon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2(3), 537-553.
- Begley, T. M., Tan, W. L., & Schoch, H.(2005). Politico-economic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est in starting a business: A multi-country stud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9(1), 35-55.
- Bergmann, H., & Sternberg, R.(2007). The changing face of entrepreneurship in Germany. *Small Business Economics*, 28(2), 205-221.
- Birdsall, N.(2006). Rising inequality in the new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 issues*, 5(1), 1-9.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1), 26-60.
- Block, J. H., & Wagner, M.(2010). Necessity and opportunity entrepreneurs in Germany: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differentials. *Schmalenbach Business Review*, 62(2), 154-174.
- Bronfenbrenner, M.(1971). *Income distribution theory*. Transaction Publishers.
- Buttner, E. H., & Moore, D. P.(1997). Women's organizational exodus to entrepreneurship: self-reported motivations and correlates with succ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5(1), 34.
- Carree, M., Van Stel, A., Thurik, R., & Wennekers, S.(2002). Economic development and business ownership: an analysis using data of 23 OECD countries in the period 1976-1996. *Small business economics*, 19(3), 271-290.
- Carree, M., Van Stel, A., Thurik, R., & Wennekers, S.(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business ownership revisited.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9(3), 281-291.
- Corak, M.(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79-102.
- Costa, D. L., & Kahn, M. E.(2003). Understanding the American decline in social capital, 1952-1998, *kyklos*, 56(1), 17-46.
- Curran, J., & Blackburn, R. A.(2001). Older people and the enterprise society: Age and self-employment propensitie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5(4), 889-902.
- Dahlqvist, J., Davidsson, P., & Wiklund, J.(2000). Initial conditions as predictors of new venture performanc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Cooper et al. study. *Enterprise and Innovation Management Studies*, 1(1), 1-17.
- Evans, D. S., & Jovanovic, B.(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4), 808-827.
- Evans, P. B., Rueschemeyer, D., & Skocpol, T. (Eds.). (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chman, M., & Levinthal, D. A.(1991). Honeymoons and the liability of adolescence: A new perspective on duration dependence in social and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2), 442-468.
- Foster J., Greer, J & Thorbecke, E., (1984) "A Class of Decomposable Poverty Measures", *Econometrica* , Vol.52, No.3.
- Gonzalez-Alvarez, N., Cooper, S., & Nieto, M.(2016). Culture and the discove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Meeting Proceedings*, 2016
- Graham, P., *Economic inequality*. Available at: <http://www.paulgraham.com/ineq.html> [Accessed December 14, 2017].
- Han, S. Y.(2016). The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Environment on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11(4), 149-165.
- Hisrich, R. D., & O'Kinneide, B.(1985). *The Irish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Problems and Future Success*, University of Limerick, Limerick.
- Holtz-Eakin, D., Joulfaian, D., & Rosen, H. S.(1994). Sticking it out: Entrepreneurial survival and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1), 53-75.
- Kakwani, N. C.(1977). Applications of Lorenz curves in economic analysis.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719-727.
- Keeble, D., Bryson, J., & Wood, P.(1992). The rise and role of small service firms in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11(1), 11-22.
- Kelley, D. J., Singer, S., & Herrington, M.(2012).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1 Global Report*, GEM 2011, 7.
- Kirchhoff, B. A., Newbert, S. L., Hasan, I., & Armington, C. (2007). The influence of university R & D expenditures on new business formations and employment grow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4), 543-559.
- Kuznets, S.(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28.
- Kuznets, S., & Jenks, E.(1953). Shares of Upper Income Groups in Savings. In *Shares of Upper Income Groups in Income and Savings* (pp. 171-218). NBER.

- Lay, T. J.(2003). The determinants of and interaction between entry and exit in Taiwan's manufacturing. *Small Business Economics*, 20(4), 319-334.
- Lazear, E. P., & Rosen, S.(1981). Rank-order tournaments as optimum labor contrac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841-864.
- Levie, J.(2007). Immigration, in-migration,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Kingdom. *Small Business Economics*, 28(2), 143-169.
- Lippmann, S., Davis, A., & Aldrich, H. E.(2005). Entrepreneurship and inequality. In *Entrepreneurship* (pp. 3-31).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assey, D. S., & Fischer, M. J.(2000). How segregation concentrates poverty. *Ethnic and racial studies*, 23(4), 670-691.
- McClelland, D. C.(1965). N achievement and entrepreneurship: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389.
- McPherson, M., Smith-Lovin, L., & Cook, J. M.(2001). Birds of a feather: Homophily in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415-444.
- Minniti, M., & Nardone, C.(2007). Being in someone else's shoes: the role of gender in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8(2), 223-238.
- Monitor, G. E. (2014). GEM 2013 global report. Global Report.
- Moon, O. R., Lee, G. S., Lee, G. H., Jang, D. M., Lee, H. J., Kim, C. Y & Sin, Y. J..(1999). *Distributional definition of health care servi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Orhan, M., & Scott, D.(2001). Why women enter into entrepreneurship: an explanatory model. *Women in management review*, 16(5), 232-247.
- Park, C., & Kang, Y. R.(2010). A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ship Among Korea, China, Mongolia, and Cambodia.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2), 225-246.
- PFeffér, J., & Salancik, G. R.(2003).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 Reynolds, P. D., Camp, S. M., Bygrave, W. D., Autio, E., & Hay, M.(200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1 Executive Report*, Babson Park/London: Babson College and London Business School.
- Roffey, B., Stanger, A., Forsaith, D., McInnes, E., Petrone, F., Symes, C., & Xydias, M.(1996). *Women in small business: A review of research*. Small Business Research Program, report for the Flinders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to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Tourism, AGPS, Canberra.
- Russell, L. B., & Chaudhuri, A.(1992). The inequality of medical expenditures for several years in a healthy, nonelderly population. *Medical care*, 30(10), 908-916.
- Shane, S., Locke, E. A., & Collins, C. J.(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257-279.
- Sharma, S., Durand, R. M., & Gur-Arie, O.(1981).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91-300.
- Skocpol, T.(2003). *Diminished democracy: 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 (Vol. 8)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Skocpol, T. (2013). *Diminished democracy: 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 (Vol. 8)*.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Stiglitz, J. E.(2012).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WW Norton & Company.
- Storey, D. J.(1998). *Six steps to heaven: Evaluating the impact of public policies to support small businesses in developed economies*. Centre for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Warwick Business School.
- Su, J., Zhai, Q., & Karlsson, T.(2017). Beyond Red Tape and Fools: Institutional Theory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1992-2014.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4), pp.505-531.
- Taormina, R. J., & Sammi Kin-Mei Lao, S.(2007). Measuring Chinese entrepreneurial motivation: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3(4), 200-221.
- Tan, J. (2002). Culture, nation, and entrepreneurial strategic orientations: Implications for an emerging econom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6(4), 95-111
- Van de Ven, H.(1993). The development of an infrastructure for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211-230.
- Venkataraman, S.(1997). The distinctiv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3(1), 119-138.
- Verheul, I., Thurik, R., Hessels, J., & van der Zwan, P.(2010). *Factors influencing the entrepreneurial engagement of opportunity and necessity entrepreneurs*. EIM Research Reports h, 201011, 1-24.
- Wade, R.(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ng, C., Walker, E. A., & Redmond, J.(2006). Ownership motivation and strategic planning in small business. *Journal of Asia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2(4), 26-50.
- Wang, S. W.(2006). Determinants of new firm formation in Taiwan. *Small Business Economics*, 27(4), 313-321.
- Wilkinson, R. G., & Pickett, K.(2009). *The 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 (Vol. 6)*. London: Allen Lane.
- Wong, P. K., Ho, Y. P., & Autio, E.(2005).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GEM data.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335-350.
- Xavier-Oliveira, E., Laplume, A. O., & Pathak, S.(2015). What motivates entrepreneurial entry under economic inequality? The role of human and financial capital. *Human Relations*, 68(7), 1183-1207.

Inequality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Byung ho Hwang**

Do hyeon Kim***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entrepreneurship activities and to provid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do this, we use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which is a survey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at the national level, the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WIID), and the World Bank survey data. The analysis shows entrepreneurial activities are relatively high in countries with high level of inequality. We also find GDP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In addition, as expected, necessity entrepreneurship prevails in low income group while opportunity entrepreneurship is dominant in high income group. The study illustrates potential venue for research of entrepreneurship and inequality, while calls for broader studies and scrutiny

Keyword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Activity, Inequality, GDP

* This manuscript an addition based on the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ookmin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Kookmin University, hbh0627@kookmin.ac.kr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drkim@kookmin.ac.kr